

약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대어의 어두음절 구조제약과 훈민정음의 23자음 중에서 어두 음절에 표기되지 못했던 ‘ㅇ, △’ 등을 범위로 하여, 구조제약의 관점에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인 15세기 국어를 중심으로 현대어에 이르기까지 통시적으로 고찰하고, 어두음절 구조제약의 원인을 구명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훈민정음의 음절과 구조제약

훈민정음 해례를 통하여 추출한 15세기 국어의 음절은 분절음소 ‘초성, 중성, 종성’이 합하여 음절구조를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 그리고 분절음은 위치에 따라 그 자질이 있음을 훈민정음 제자해⁴⁾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초성은 열어서 움직이는 것이니 하늘의 일이며, 종성은 멈추어 정하는 것이니 땅의 일이다. 중성은 첫소리가 열리도록 이끌고, 끝소리를 이어주니 사람의 일이다. 대개 자운의 중요성은 중성에 있으니, 첫소리와 끝소리가 합하여 성음을 이룬다. 오히려 천지가 만물을 생성하여도, 그 재물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부족함을 보충하여 주어야 되는데 사람의 역할이 이와 같다.

이와 같이 음절구조에서 초성자리는 소리를 여는 위치이며, 종성자리는 닫는 위치적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자음들은 제약을 받는다. 즉 음절을 여는 초성의 소리는 활발하고 명료한 자음일수록 적당하며, 음절을 닫는 종성은 정적이고 폐쇄성이 있어야 적당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성은 음절의 중추적 역할을 하여 성음을 이루도록 하는 요소라는 것이다. 또한 초성은 중성의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중성과 초성의 상관 관계를 훈민정음에서 살펴보면,

…중성이 심천(深淺) 함벽(闔關)으로 앞에서 부르면 초성이 오음(五音) 청탁으로 뒤에서 화답한다…⁵⁾

3) 훈민정음의 성음절 규정 : 凡字必合而成音(例義), 初中終三聲合而成字(合字解)

4) 훈민정음 제자해 : …初聲有發動之義, 天之事也. 終聲有止定之義, 地之事也. 中聲承初之生, 接終之成, 人之事也. 蓋字韻之要, 在於中聲, 初終合而成音. 亦猶天地生成萬物, 而其財成輔相則必賴乎人也.

이와 같이 중성은 깊음과 얇음, 단힘과 열림으로써 초성을 부르면 초성은 오음과 청탁으로써 뒤에서 화답한다고 하였으니, 한 음절을 이루는데 중성의 역할이 중추적임을 알 수 있다. 즉 초성은 중성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2.2. 어두음절 구조제약

음절의 구조제약에 관하여 강창석(1984: 212)은 ‘음절 초는 센소리를 조건으로 하는 위치이고, 음절 말은 약한 소리를 조건으로 하는 위치’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는 훈민정음에서 ‘초성은 동(動)적이고, 종성은 정(靜)적’이라고 설명한 것과 맥이 통하는 견해이다. 이와 같은 근거에 대하여 몇 가지 구조제약을 정리하여 보기로 한다.

첫째 공명도제약은 공명도가 높은 자음일수록 모음에 흡수되기 쉬워서 자음의 음가가 나타나지 않는데 근거한 제약이다. 즉 ‘ㄱ, ㄴ’은 공명도가 가장 높은 자음이기 때문에 모음에 흡수되어 ‘ㄱ, ㄴ’의 음가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둘째 자음군제약은 한국어의 어두음절초에는 한 소리의 분절음소만 위치할 수 있다. 그런데 훈민정음에 2자와 3자의 합용병서가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구조제약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3. 어두음절초 ‘ㄱ’의 분포와 구조제약

훈민정음 해례에서 ‘ㄱ’은 반설음으로써 소리가 여린 불청불탁(유성) 자음으로 설명되어 있고, 한자음에는 보편적으로 사용하였지만 순우리말의 표기에는 그 사례가 소수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대국어에서는 한자음도 두 음법칙으로 규정하여 어두음절제약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면 15세기 표기는 어떠한지 분포를 조사하고 통시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3.1. 어두음절초 ‘ㄱ’의 분포

15세기 문헌에서 조사한 어두 ‘ㄱ’의 분포 사례이다. 어형의 변화 표시로

5) 훈민정음 제자해 : …中聲以深淺闔闢唱之於前, 初聲以五音清濁和之於後…,

‘>’를 사용하여 ‘15세기의 어형> 현대어의 어형’을 나타내어 비교 하였다.
 러·울>너구리(獺수달달) : [훈민; 용자례]
 라·귀>나귀 : [법화 2:165], [금삼 2:39], [구간 1:95], [월석 23:72]

3.2. 어두음절초 ‘ㄹ’의 통시적 검토

(1) 러·울(15세기)>너구리(16세기) : 현대어에서는 ‘너구리’로 사용하고 있으나 15세기에는 ‘ㄹ’ 초성을 표기한 것이 확실하며 그 발음은 [r<] 설전 음이었을 것이다. ‘ㄹ’ 초성의 표기가 변화된 시기를 보면 16세기 후반인 ‘[신증유합 (1576)], [소학언해 (1586)], [분문운역이해방 (1542)]’ 등에서 ‘너구리’로 표기되어 있다. 즉 16세기 후반부터는 ‘ㄹ’ 초성 제약이 적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 라·귀(15세기)>나귀(16세기) : ‘라·귀’도 15세기에는 보편적으로 표기되었으나 ‘나귀’로 변화된 시기는 ‘[몽산화산범어약록 : 세조 조 추정]’, [두서언해 (1481)], [훈몽자회 (1517)], [신증유합 (1576)]’ 등으로 15세기 후반부터 16세기에 ‘ㄹ’ 초성 제약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3) 반면, 15세기에 표기가 없었는데 16세기에 ‘락시(16세기)>낙시(18세기)’⁷⁾, ‘로새(16세기)>노새(17-18세기)’⁸⁾ 등이 표기되었다.

위 ‘3.2’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어두 ‘ㄹ’의 표기 연표와 제약

연대 항목	15c	16c	17c	18c	현대	비고
ㄹ>ㄴ	ㄹ>ㄴ, ㄹ	ㄹ>ㄴ, ㄹ	ㄹ>ㄴ, ㄹ	ㄹ>ㄴ	ㄴ	
제약 유무	유와 무	유와 무	유와 무	유	유	공명도

이와 같이 15-18세기 동안 어두(초성)에 ‘ㄹ’이 어휘에 따라 제약을 받아서 변화된 것도 있고, 제약을 받지 않은 것도 있다. 그러나 처음 표기에서 ‘ㄹ’이었던 어휘들은 대부분 공명도 제약의 영향을 받아서 ‘ㄴ’으로 변화된

6) 몽산화산범어약록 : 1차; 연대 불명 세조 조(봉)추정, 2차; 중종 조(1517, 1521, 1543) 간행.

7) 락시>낙시 : 락시 [신증유합 상:15 (1576)] > 낙시 [왜어유해 하:15 (연대미상 18c 추정)]

8) 로새>노새 : 로새 [신증유합 상:13 (1576)] [석봉천자문 38 (1583)] > 노새 [역어유해 상:20 (1690)] [분문유해 상:53 (1748)][왜어유해 하:15 (연대미상 18c 추정)]

것으로 보인다. 즉 ‘ㄹ’은 공명도가 모음과 가깝고 소리가 여린 자음이기 때문에 공명도 제약을 받은 것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우리말의 음성음소는 [r]과 [l]의 변별이 되지 않고 [l]만 인식하여 ‘ㄹ’로 대표하고 있으나, 사실상 어두(초성)의 ‘ㄹ’은 설전음인 [r]이어야 하고, 중성에는 [l]이 옳은 것이다. 그래서 ‘ㄹ’이 [l]로 대표되어 당시의 문헌에도 어두보다는 ‘어중음이나 받침’으로 두루 표기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한편, 한자음에 대하여는 이 글에서 논의로 하고 있지만 첨언하면 ‘ㄹ’ 표기가 ‘래년(來年)[한청문감 (1779)]’의 경우 같이 18세기까지 흔들리지 않고 표기되었다. 그리고 한글맞춤법통일안(1933)에 이르러 두음법칙을 규정하여 어두음절초 공명도제약을 적용하고 있다.

4. 어두음절초 ‘ㄴ’의 분포와 구조제약

훈민정음 해례본에 설단비음 ‘ㄴ’은 ‘나’ 발음 할 때 혀끝을 잇몸에 살짝 붙였다가 떼면서 나는 소리로써 세기가 여린 불청불탁(유성음) 자음인 것이다. 그래서 현대국어에서는 ‘ㄴ’의 뒤에 ‘ㅣ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등의 중성이 올 때는 초성에 분포할 수 없다는 구조제약을 근거로 하여 두음 규칙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면 15세기 표기는 어떠하였는지 분포를 조사하여 통시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4.1. 어두음절초 ‘ㄴ’의 분포

15세기 문헌에서 조사한 어두 ‘ㄴ’의 분포 사례이다. 어형의 변화 표시로 ‘>’을 사용하여 ‘15세기의 어형> 현대어의 어형’을 나타내어 비교 하였다.

- 녀름>여름 : [석보 9:34], [월석 서:34], [두시 초 20:51], [금삼 2:6]
 녀·딛·다>여미다 : [두시 초 8:20]
 녀(穉)>엽 : [훈민 합자해], [월석 2:36], [법화 2:13]
 :네>예 : [석보 6:8], [월곡 105], [월석 1:14] [법화 2:41]
 녀금>입금 : [용비 33, 39, 125], [월석 8:79] [금삼 4:40], [능엄 9:3]
 녀·다>입다 : [월곡 155], [석보 11:8], [능엄 4:31] 7], [두시 초 22:54]
 :닛·다>잇다 : [월곡 112], [석보 11:30], [법화 3:58], [원각 서 75]
 닛·다>잇다 : [용비 63, 105], [석보 6:4], [금삼 3:23], [능엄 2:133]

· 뇨>요 : [용비 84], [석보 11:2], [두시 초 7:20], [능엄 1:87]

4.2. 어두음절초 ‘ㄴ’의 통시적 검토

(1) ‘녀름(15-18세기)>여름(18세기)’에서 보면 ‘녀름’이 15세기에 보편적으로 표기되었고, 16세기는 [훈몽자회 (1527)], 18세기는 [한창문감 (1779)] [동문유해 (1748)] 등에 표기되었음을 고찰 할 수 있다. 그리고 16세기에 ‘녀·름(夏)’으로 [신증유합 상:13 (1576)], [석봉천자문 38 (1583)] 등에 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면 ‘녀름’에서 ‘여름’으로 변화된 시기의 문헌을 보면 ‘봄과 여름과 7월과 겨울과 [염불보권문 (1776)]’과 같이 18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ㄴ’에서 ‘ㅇ’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한편 ‘녀름(夏)’이 ‘여름’으로 변화되기 어려웠던 이유는 15세기에 ‘여·름(實)’이 있었기 때문이며, 18세기 변화에서도 ‘여름’으로 된 것으로 보인다.

(2) 녀(僿)의 경우는 15-16세기에 보편적으로 표기되었고, 18세기 이내의 문헌에서 ‘녀(僿)’이 ‘엽’으로 변화한 자료는 찾을 수가 없었다.

(3) :네(옛적)의 경우도 ‘옛말[소학언해 (1586)]’에서 잠시 보일 뿐 ‘예’로 변화한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미 훈민정음 초기부터 부사로 ‘예(여기), 옛(여기)’로 쓰였으며, ‘:예(倭人)’으로 표기되고 있던 것으로 보아서 ‘ㄴ’과 ‘ㅇ’은 최소 대립어로서 관계가 있기 때문에 ‘ㅇ’으로 변화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15세기는 ‘ㅇ’이 두음으로서 음소자질이 검토되어야 하겠다. 이와 같은 현상은 ‘녀·다(被)와 :입·다(昏迷), :녀·다(있다)와 잇·다(있다), :녀·다(있다)와 잇·다(이지러지다)’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15세기 훈민정음 초기에서는 ‘ㄴ’과 ‘ㅇ’이 음소의 최소 대립적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대어에서 ‘ㅣ’의 앞에 ‘ㄴ’은 음절구조 제약의 영향으로 ‘ㅇ’으로 교체되어 표기되고 있지만 15-18세기는 ‘ㄴ’을 어두에 표기하였다. 그리고 ‘ㄴ’과 ‘ㅇ’은 최소 대립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4) ‘:님·금’은 15세기에 보편적으로 표기가 되었고, 16세기는 ‘:님·금’으로 [훈몽자회 (1527)], [신증유합 상:13 (1576)], [두시언해 중간 3:67 (1632)] 등에 표기가 되기도 하였다. ‘:님·금’의 경우에 18세기 이내의 자료에서 ‘임금’으로 변화된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위 ‘4.2’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이어·괴>이긔 : [석보 29:17], [월석 2:27]
 -이·다 : [석보 6:5] [능엄 52], [월석 8:100]

5.2. 어두음절초 ‘ㅇ’의 통시적 검토

(1) ‘ㅇ’의 표기를 보면 어두의 초성에는 분포되지 않았으며, 어중의 초성에 분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어중 초성에 위치한 ‘ㅇ’에 대하여 변화 된 현대어의 관점에서 검토하면 ‘선행 음의 종성 자질’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서·에(流澌)>성애, 이·하(綜)>잉아’ 등이다. 그러므로 ‘ㅇ’은 사실상 ‘[ŋ]’의 자질로 보인다.

(3) ‘서·에(流澌)>성애(17-18세기)’의 변화 시기를 보면 ‘성애’로는 [역어유해 상:7 (1690)], [동문유해 상:9 (1748)], [한청문감 (1779)] 등에 이미 변화되었으며, ‘성애’로는 [왜어유해 상:10 연대미상(18세기로 추정)]에 변화되어 표기되었다.

(4) ‘이·하(綜)>잉아’의 변화 과정과 시기는 먼저 ‘잉·아(綜)[사성통해 상:4 (1517)], [훈몽자회 중:7 (1527)], [신증유합 상:8 (1576)], [역어유해 하:3 (1690)]’ 등에서 ‘ㅇ’이 선행음절 종성으로 표기되었다. 그리고 현대어 표기와 같이 ‘잉아[유씨 물명고 三草 유희 저(1773-1837)]¹⁰⁾로 19세기 초반에 완전 변화되기도 하였다.

(5) ‘러·울(獮)>너구리(16세기)’의 경우는 ‘어중 초성’에서 위치를 지키면서 ‘ㅇ’이 전칭 ‘ㄱ([k])’으로 변화되었다. 이 또한 ‘ㅇ’이 초성으로써 자질이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되어 표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너구리’로 변화 시기는 16세기에 [신증유합 (1576)], [소학언해 (1586)], [분문은역이해방 (1542)]에 나타나고 있다.

위 ‘5.2’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어중음절초 ‘ㅇ’의 표기 연표와 제약

연대 항목	15c	16c	17c	18c	현대	비고
ㅇ>[ŋ],[k]	ㅇ	ㅇ>[k],[ŋ]	ㅇ>[ŋ]	ㅇ>[ŋ]	ㅇ	
제약 유무	무	유	유	유	유	공명도

10) 물명고 : 일본에 있는 문헌을 조선학보(15-20권)에 필사 영인한 것이기 때문에 필사의 연대와 과정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

따라서 어두음절초에는 ‘ㅇ’이 15세기부터 공명도 제약에 의하여 표기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어중음절 초에 표기가 되었던 ‘ㅇ’도 16세기 후반부터는 음절 초에 위치할 경우 [k], 선행 음절 말에 위치할 경우 [ŋ]로 나타난 것으로 봐서 ‘ㅇ’은 어두와 어중 음절 초에서 공명도의 제약을 받았다고 생각된다.

6. 어두음절초 ‘△’의 분포와 구조제약

훈민정음 해례에 치음은 치음이되 반치음으로써 소리의 세기가 여린 불청불탁(유성음) 자음인 것이다. 반치음 ‘△’은 현대어에서는 소실된 자음이지만 15세기 당시에는 사잇소리나 어중 초성으로 대부분 표기되었고 특별히 어두(쇼ㅎ, 썸썸 등)에 쓰인 경우도 있었다.

그러면 15세기 표기는 어떠한지 분포를 조사하여, 통시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6.1. 어두음절 ‘△’의 분포

15세기 문헌에서 조사한 어두 ‘△’의 분포 사례이다. 어형의 변화 표시로 ‘>’을 사용하여 ‘15세기의 어형> 현대어의 어형’을 나타내어 비교 하였다.

쇼ㅎ>요(褥) : [법화 2:243], [석보 11:22], [삼강 효2]

썸썸> 아른아른 : 陽氣 썸썸 노는 거시니[금삼 5:27]

:너△>너새(鴉; 너새보) : [훈민 용자례]

아스>아우(弟) : [훈민 용자례], [월석 1:5], [법화 7:144]

딴슴>마음(心) : [용비 18], [석보 6:8]

딴술ㅎ>마을(里) : [석보 6:23]

마순>마흔 : [월석 2:41], [법화 2:13]

-·습- : 몸에 딴슴불나[월곡: 49]

-·샤- : 나가사 즈딴니이다[용비 67], 업거샤 發호리라[석보 6:45]

설설>설설 : 설설 흐르는 물겨래[몽산 43 (세조 조 추정)]¹¹⁾

11) 몽산화상법어약록 : 병의 표기, 세조 조 간행 추정, 이후 중종 조 1517, 1521, 1543 간행.

6.2. 어두음절초 ‘△’의 동시적 검토

(1) 반치음 ‘△’은 15세기 당시에도 어두음절 구조제약의 영향을 받은 듯하다. 그래서 극소수에만 표기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표기는 대부분 ‘△>○’으로 변화되었는데 마찰음인 ‘△’이 자질을 잃어버리고 ‘○’으로 흡수되었다. 그리고 일부 ‘△>ㅅ’으로도 변화가 되었다.

(2) ‘쇼ㅎ(15세기)>요(禱)(16-18)’에 대한 변화 시기를 보면 ‘요(禱) : [훈몽자회 중:11 (1527)], [신증유합 상:24 (1576)], [박통사언해 중 (1677)], [역어유해 하:15 (1690)], [동문유해 상:58 (1748)], [한청문감 (1779)]’ 등과 같이 변화되었다.

(3) ‘:너시(15세기)>너새(18세기)(鵠;보)’의 변화는 ‘너새[동문유해 하:34 (1748)], [한청문감 (1779)]’와 ‘너시[청구영언 111 (1728)], [유씨 물명고; 순조조(19세기)]’ 등으로 ‘△>ㅅ’ 변화되어 표기하였다.

(4) ‘ㅁ슴>ㅁ슴, ㅁ음(心)’은 ‘ㅁ슴[금강경언해 2 (1464)], [두시언해 초 20:27 (1481)], [야운자경 40 (1577)], [염불보권문 37 (1776)]’ 등의 경우와 ‘ㅁ음 [야운자경 53 (1557)], [신증유합 하:1 (1576)], [소학언해 3:4 (1586)]’ 등의 경우와 ‘ㅁ음’ [두시언해 중 9:24 (1632)]의 경우와 ‘ㅁ음’ [19사략언해 (1772)] 으로 다양하게 변화 되었다.

그러나 ‘△’는 ‘△>ㅅ>○’으로 변화되었지만 이 글에서 고찰한 15-18세기 사이의 문헌에서는 ‘마음’으로 변화된 표기는 찾을 수가 없었다.

(5) ‘ㅁ술ㅎ>마슬>ㅁ슬>마을(里)’의 변화 과정에서 ‘마·슬[두시언해 초 20:10, 24:38, 16:67, 16:18, 8:3 (1481)], [박통사언해 초:65 (1517 이전)], [노걸대언해 상:25 (1670)], [훈몽자회 중:7 (1527)], [신증유합 상:18 (1576)]’ 등으로 나타났으며, ‘마·슬 [훈몽자회 중:7 (1527)], [번역소학 9:49 (1517)]’로도 표기되었다. 그리고 ‘△>ㅅ’의 변화는 ‘ㅁ슬 [백련초해 20 {김인후 찬으로 명종 때(1563)에 간행 부전, 경종 때(1723)에 간행본 현전}]’에서 나타났다.

(6) ‘△>○’의 변화는 ‘ㅁ을ㅎ[신증유합 상:18 (1576)], [소학언해 6:12, 6:60, 6:54 (1586)]’로 나타나며, ‘ㅁ을ㅎ[소학언해 6:80, 5:55 (1586)]’과 ‘마·을[소학언해 6:113, 6:84 (1586)], [석봉천자문 21 (1583)]’ 등으로 혼용되어 표시되었다. 즉 소학언해에는 ‘ㅁ을ㅎ, ㅁ을ㅎ, ㅁ을ㅎ, 마·을’ 등과 ‘마·을 [소학언해 6:45 (1586)]’ 등이 혼용되어 변화의 과도기적 양상을 보였다.

위 ‘3.2’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어두 ‘△’의 표기 연표와 제약

연대	15c	16c	17c	18c	현대	비고
항목						
△>○	△	△>○	△>○	△>○	○	어두
제약 유무	무	유	유	유	유	공명도
△>ㅅ, ○	△>ㅅ, △	△>○, △>ㅅ, △	△>○	△>○, △>ㅅ	○	어중
제약 유무	유와 무	유와 무	유	유	유	공명도

따라서 15세기 어두음절초에 ‘△’은 소수 어휘에 표기되었으나 공명도 제약의 영향으로 표기가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어중음절초에도 16세기 후반부터 대부분 ‘△>○, △>ㅅ’으로 변화되어 표기되었다. 한편 ‘△>ㅅ’은 ‘ㅁ슴’의 경우만 15세기에 잠시 나타났다가 18세기 이후에는 ‘ㅅ’으로 변화되어 어중 초성으로 자리를 잡았다. 따라서 ‘△’은 공명도 제약을 받은 것이라 판단된다.

7. 어두음절초 ‘자음군’의 분포와 구조제약

현대국어는 어두음절초에 자음군의 제약이 있다. 그런데 합용병서는 18세기까지 표기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15세기 국어에는 자음군이 분포되었다고 본다. 그러면 15세기 병서표기를 중심으로 분포를 조사하여, 통시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7.1. 합용병서 어두음절초 ‘ㅅ’계의 분포와 구조제약

7.1.1. 어두음절초 ‘ㅅ’의 분포와 구조제약

7.1.1.1. 어두음절초 ‘ㅅ’의 분포

15세기 문헌에서 조사한 어두 ‘ㅅ’의 분포 사례이다. 어형의 변화 표시로 ‘>’을 사용하여 ‘15세기의 어형> 현대어의 어형’을 나타내어 비교 하였다.

· 꺾>꺾 : [용비 19 (1447)], · 꿈>꿈 : [월곡 67 (1447)], · 질·다>꺾다 : [월곡 66 (1447)], · 씨·다>깨다(醒) : [월석10:70 (1459)], · 씨질·다>깨닫다 : [석보 6:20 (1447)], · 쏘다>꺾다 : 黃金으로 노 쏘아 [석 13:62

(1459)], 쏘·리>꼬리 : [월석 1:28 (1459)] ·꾸·미·다>꾸미다 : [월곡 119 (1447)], 뽕>뽕(雉) : [용비 88 (1447)]

7.1.1.2. 어두음절초 ‘시’의 통시적 검토

① ‘시’의 분포와 같이 어두음절 ‘시’은 15세기에 안정적으로 표기됐다.

② ‘씨다(醒, 甦)’의 경우는 ‘15세기에 [월석10:70 (1459)], [두시초 21:45 (1481)], 16세기에 [번역소학8:24 (1517)], [유합 하:7 (1576)], 17세기에 [노걸대 상20 (1670)], 18세기에 [송강1:2 (1747)]’ 등과 같이 15-18세기까지 표기가 이어지고 있다. 그밖에 ‘쏘다, 쏘리, 쏘, 뽕, 씨다’ 등도 18세기까지 표기가 되었다.

7.1.2. 어두음절초 ‘씨’의 분포와 구조제약

7.1.2.1. 어두음절초 ‘씨’의 분포

15세기 문헌에서 조사한 어두 ‘씨’의 분포 사례이다. 어형의 변화 표시로 ‘>’을 사용하여 ‘15세기의 어형> 현대어의 어형’을 나타내어 비교 하였다.

·썰>딸 : [용비 96 (1447)], [월곡 36 (1447)], ·씩>떡 : [월석 1:42 (1459)], ·쑤>땀(汗) : [월석 2:13 (1459)], 짜>땅(地) : [훈민 합자 (1446)] [석보 6:32 (1447)], [석보 6:34] [석보 6:34], ·쏘>또(叉) : [용비 9 (1447)], 뽕>똥(糞) : [월석 上 9:35 (1459)], 씨·다>띠다(帶) : [용비 112 (1447)]

7.1.2.2. 어두음절초 ‘씨’의 통시적 검토

① ‘씨’의 분포와 같이 어두음절 ‘씨’은 15세기에 안정적으로 표기됐다.

② ‘쑤’의 경우는 ‘15세기에 [월석 2:13 (1459)], [원각경 (1465)], 16세기에 [자회 상:22 (1527)], [유합 상:30 (1576)], 17세기에 [노걸대 하:27 (1670)], 18세기에 [한청문감 219 (1779)]’ 등과 같이 15-18세기까지 표기가 이어지고 있다. 그밖에 ‘씩, 뽕, 씨’ 등도 18세기까지 표기가 되었다.

7.1.3. 어두음절초 ‘ㅅ’의 분포와 구조제약

7.1.3.1. 어두음절초 ‘ㅅ’의 분포

15세기 문헌에서 조사한 어두 ‘ㅅ’의 분포 사례이다. 어형의 변화 표시로 ‘>’을 사용하여 ‘15세기의 어형> 현대어의 어형’을 나타내어 비교 하였다.

· ㅍ>ㅑ : [구방 하 50 (1466)], · ㅍ>ㅑ : [월석 10:24 (1459)], [능엄 2:4 (1461)], ㅍ>ㅑ·다>빠르다(速) : [법화 4:178 (1463)], · ㅍ>ㅑ·다>빨다(洗) : [석보 11:25 (1447)], · ㅍ>ㅑ·다·다>빠지다 : [석보 9:37 (1447)], :ㅍ>ㅑ : [용비 44 (1447)], [월곡 40 (1447)], · ㅍ>ㅑ(角) : [월곡 162 (1447)], [석보 6:32 (1447)], · ㅍ>ㅑ·ㄹ>다>뵤족하다 : [구방 下 69 (1466)], [구간 6:39 (1489)]

7.1.3.2. 어두음절초 ‘ㅅ’의 동시적 검토

① ‘ㅅ’의 분포와 같이 어두음절 ‘ㅅ’은 15세기에 안정적으로 표기됐다.

② ‘ㅍ’의 경우는 ‘15세기에 [구방 하 50 (1466)], 16세기에 [자회 상:25 (1527)], [유합 상:21 (1576)], 17세기에 [역어유해 상:33 (1690)], 18세기에 [동문 상:14 (1748)]’ 등과 같이 15-18세기까지 표기가 이어지고 있다. 그밖에 ‘ㅍ르다, 썰다, ㅍ디다, ㅍ허다, ㅍ, ㅍ, ㅍ다’ 등도 18세기까지 표기가 되었다.

위 ‘8.1.1.2, 8.1.2.2, 8.1.3.2’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어두 ‘ㅅ’계의 표기 연표와 제약

연대 항목	15c	16c	17c	18c	현대	비고
ㅅ> ㅍ	ㅅ	ㅅ	ㅅ	ㅅ	ㅍ	
ㅍ> ㅑ	ㅍ	ㅍ	ㅍ	ㅍ	ㅑ	
ㅍ> ㅑ	ㅍ	ㅍ	ㅍ	ㅍ	ㅑ	
제약 유무	무	무	무	무	무	자음군

위와 같이 15세기부터 어두음절초 ‘ㅅ, ㅍ, ㅑ’ 등은 자음군제약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합용병서 ‘ㅅ’계의 자질은 어두음절

에 위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합용병서 ‘ㅅ’계에 대하여 ‘자음군설과 경음설’이 있었는데 자음군제약을 받지 않은 것으로 봐서 한 음소로서 경음(된소리)으로 판단된다.

선행연구에서 어두 ‘ㅅ’계의 경음설은 이승녕(1954, 1961, 1981, 1986), 이기문(1955, 1972, 1987), 김민수(1955), 이남덕(1968, 1986), 김형규(1989), 박병채(1971) 등에 의하여 제기 되었다. 또한 유창돈(1978), 이동립(1964)은 ‘어두 ㅅ’을 내파음 [t<]으로 보았고, 강길운(1977)은 경음 기호로 보았다. 그리고 권재선(1977, 1979)은 구개음화의 견해를 밝혔으며, 오정란(1984)은 ‘파열음 앞에서는 [t<]이나 [ʔ]로 되고, 비음 앞에서는 [s]’라는 결합적 차이의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이은정(1975)은 ‘구강내의 이중조음 성문화 표시’라는 주장이 제기 되어 있다. 여러 견해에서 방법론적 차이는 있지만 모두 경음을 주장들이다. 이 글에서도 밝혔듯이 15세기에서부터 한글맞춤법통일안(1933)이 마련되기까지 변함없이 표기된 것으로 봐서 한 음(경음)에 대한 음소 표시였다고 밝힌다.

반면 모든 합용병서가 자음군이라는 견해는 최현배(1942, 1982), 허웅(1953, 1965, 1981, 1999), 김차균(1984), 박창원(1988, 1996) 등에 의하여 제기 되었다. 그런데 허웅(1999:471-473)도 ‘ㅅ’에 있어서만큼은 경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ㅅ, ㅅ, ㅅ/은 된소리가 될만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였고, 16세기 문헌에서는 된소리의 예들이 상당수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16세기 초기까지는 이미 거의 완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ㅅ’계 경음(된소리)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합용병서 ‘ㅅ’계의 추론 과정에서는 약간의 시차와 견해 차이는 있으나 경음(된소리)이라는 합일점을 찾은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ㅅ’계 합용병서는 경음이라고 할 수 있다.

7.2. 합용병서 어두음절초 ‘ㅂ’계의 분포와 구조계약

7.2.1. 어두음절초 ‘ㅂ’의 분포와 구조계약

7.2.1.1. 어두음절초 ‘ㅂ’의 분포

15세기 문헌에서 조사한 어두 ‘ㅂ’의 분포 사례이다. 어형의 변화 표시로 ‘>’을 사용하여 ‘15세기의 어형> 현대어의 어형’을 나타내어 비교 하였다.

· 뜯>(뚫) : [석보 19:34 (1447)], · 빼>(뺏목 벌; 筏) : [능엄 1:3 (1462)],
 · 뺏·다>(따다; 摘) : [석보 11:26 (1447)], · 딸기>(딸가; 莓) : [구간 6:12 (1489)],
 · 띠>(때; 垢) : [석보 6:7 (1447)], [월석 8:11 (1459)], 뺏·디·
 다>떨어지다 : [용비 87 (1447)], 떠나·다>떠나다(去) : [관음 4 (1485)],
 뛰·다>뛰다(跳) : [금삼 2:12 (1482)], · 뜯>뚫(志) : [석보 19:34 (1447)],
 [용비 86 (1447)]

7.2.1.2. 어두음절초 ‘ㅈ’의 통시적 검토

① 어두 ‘ㅈ’ 합용병서 표기는 훈민정음 합자해에 규정된 순우리말 자음 체계로서 15-16세기 국어에는 안정된 표기를 보이다가 17세기에 이르러 소멸하기 시작하여 18세기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뺏다(摘 ; 따다)’가 18세기 [송강가사 2:3 (1747)]에 표기가 되었다.¹²⁾ 그러나 같은 시기 ‘뽕 썬는 겨집이[내훈 重 2:104 (1736)]’과 ‘썬다(따다)[동문 上 2 (1748)]’ 등으로 표기된 점으로 보아 18세기에 전환 완료되었다 할 수 있다. 즉, 17세기말까지 어두 ‘ㅈ’ 합용병서의 ‘ㅈ-’은 ‘ㅅ-’으로 거의 교체되었고, 18세기에는 완전 교체가 마무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② 그런데 ‘뺏다(느리다)’가 18세기에 ‘말 뺏다[역어유해보 25 (1775)]’와 같이 문헌에 나타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은 1690년 숙종조에 편찬된 ‘譯語類解(신이행, 김경준 撰)’를 1775년 영조조에 김홍철이 보완하여 엮으면서 전 책을 옮겨 표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라 추정된다. 따라서 ‘뺏다’도 변화의 조류는 17세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7.2.2. 어두음절초 ‘ㅈ’의 분포와 구조제약

7.2.2.1. 어두음절초 ‘ㅈ’의 분포

15세기 문헌에서 조사한 어두 ‘ㅈ’의 분포 사례이다. 어형의 변화 표시로 ‘>’을 사용하여 ‘15세기의 어형> 현대어의 어형’을 나타내어 비교 하였다.

· 뺏·다(彈)<월석 8:49 (1459)>, :뺏·다(털 拂)<능엄 2:69 (1461)>, · 뺏

12) 송강가사의 문헌 검토 : 송강 정철의 작품을 1690년 숙종조에 간행한 것을 의성본이라 하고, 이후 1747년(영조조)에 간행된 것을 성주본이라 한다. 따라서 17세기 의성본을 옮겨 적는 과정에서 표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 다(刳)[월석 23:73 (1459)], · 뼈디 · 다[월석 2:38 (1459)], 뛰 · 다(跳)[두시초 25:53 (1481)], :뽯 · 다(뽯다)[석보 19:20 (1447)]

7.2.2.2. 어두음절초 ‘ㅉ’의 통시적 검토

① 어두 ‘ㅉ’ 합용병서는 실제 활용한 수가 적었으며, 문헌에 표기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대부분 정음 초기 15세기에 표기되었으나 이미 15-16세기부터 소멸되기 시작하여 17세기 말에 소멸되어, 18세기에는 표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② ‘트’은 유기음인데 유기음을 경음화 한다는 것은 어떤 음가를 말하는 것인가? 또한 합용병서의 구성 원리와 체계는 ‘무성 자음’을 2-3자 합하는 것인데, 그 구성 체계가 무너졌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 과제로 남긴다.

7.2.3. 어두음절초 ‘ㅃ’의 분포와 구조계약

7.2.3.1. 어두음절초 ‘ㅃ’의 분포

15세기 문헌에서 조사한 어두 ‘ㅃ’의 분포 사례이다. 어형의 변화 표시로 ‘>’을 사용하여 ‘15세기의 어형> 현대어의 어형’을 나타내어 비교 하였다.

· ㅃ · 다(包)[두시초 16:67 (1481)], · ㅃ · 다(쌓다)[삼강 孝 10 (1481)][積], · ㅃ · 다(싸다)[구간 1:43 (1489)], · ㅃ(쌀)[월곡 62 (1447)], · ㅃ[내훈 序 3 (1475)], · ㅃ · 다(쏘다)[구방 下 84 (1466)], · ㅃ · 다(用)[용비 77 (1447)], · ㅃ · 다(苦)[월석 2:25 (1459)], · ㅃ · 다(掃)[월곡 55 (1447)], ㅃ개[금삼 2:60 (1482)], · ㅃ(種)[월석 1:12 (1459)], · ㅃ · 다(射)[박통 초 상:54 (1517 전)]

7.2.3.2. 어두음절초 ‘ㅃ’의 통시적 검토

‘ㅃ’ 합용병서 중에는 18-19세기에도 소멸되지 않고 ‘ㅃ다(包)[1797년], ㅃ다(築)[1728, 1765], ㅃ(米)[1880], ㅃ다(射)[1797, 1880], ㅃ다(書)[1736, 1880], ㅃ(種)[1797]’과 같이 표기된 점으로 보아 17-18세기에 다른 ‘ㅃ’계 합용병서는 소멸되거나 ‘ㅃ’계 된소리로 편입이 되었는데 ‘ㅃ’은 된소리로 굳어져서 존속된 것으로 보인다. 즉 18세기말경에는 ‘ㅃ’계 합용병서가 대부분 ‘ㅃ’계 된소리로 굳어졌고, 그 ‘ㅃ’계 된소리 체계는 ‘ㅃ, ㅃ, ㅃ, (ㅃ)=ㅃ, ㅃ’

등으로 자리를 잡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ㅁ’은 외형상 ‘ㅂ’계이지만 된소리 ‘ㅄ(ㅁ)’의 대응으로 표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

7.2.4. 어두음절초 ‘ㅁ’의 분포와 구조제약

7.2.4.1. 어두음절초 ‘ㅁ’의 분포

15세기 문헌에서 조사한 어두 ‘ㅁ’의 분포 사례이다. 어형의 변화 표시로 ‘>’을 사용하여 ‘15세기의 어형> 현대어의 어형’을 나타내어 비교 하였다.

· ㅁ · 다>(짜다 壓)[법화 7:119 (1463)], · ㅁ · 다>(짜다 織)[삼강 련 2 (1481)], ㅁ · 다>(짜다 作)[능엄 8:88 (1462)], · ㅁ · 다>(짜다)[월석 1:23 (1459)][鹹; 짤 함 = 鹹], · ㅁ · 다>(짜다)[월석 1:29 (1459)](裂), · ㅁ · 다>(찢다)[월곡 161 (1447)], ㅁ>(짜; 隻, 匹, 配)[훈민 합자해 (1446)], ㅁ · 다>(쫓다)[월석 10:24 (1459)](遂)

7.2.4.2. 어두음절초 ‘ㅁ’의 통시적 검토

① ‘ㅁ’의 분포와 같이 어두음절 ‘ㅁ’은 15세기에 안정적으로 표기됐다.

② ‘ㅁ다(織)’의 경우는 ‘15세기에 [삼강 효:9 (1481)], 16세기에 [자회 하:19 (1527)], 17세기에 [노걸대 하:62 (1670)], 18세기에 [역유보 43 (1775)]’ 등과 같이 15-18세기까지 표기가 이어지고 있다. 그밖에 ‘ㅁ다(鹹), ㅁ, ㅁ, ㅁ다, ㅁ다’ 등도 17세기까지 이어졌고, ‘ㅁ다(作), ㅁ다’ 등은 18세기까지 표기가 되었다.

7.2.5. 어두음절초 ‘ㅂ’의 분포와 구조제약

7.2.5.1. 어두음절초 ‘ㅂ’의 분포

15세기 문헌에서 조사한 어두 ‘ㅂ’의 분포 사례이다. 어형의 변화 표시로 ‘>’을 사용하여 ‘15세기의 어형> 현대어의 어형’을 나타내어 비교 하였다.

· ㅂ>(틈) : ㅂ爲隙 [解例. (1446)], [석보 6:24. (1447)], [능엄 1:105. (1461)], · ㅂ>(꿀)[월석 1:42 (1459)], · ㅂ · 다>(작다)[원각序 9 (1465)], ·

뵈 · 다(까다)[석보 13:10 (1447)], 뵈 · 다(破)[법화 1:13 (1463)], · 뵈디 · 다>(꺼지다;沒)[능엄 1:8 (1461)], :뵈 · 다>(뵈다;貫)[용비 23 (1447)], · 뵈 · 다>꾸다[삼강 후 9 (1481)], · 뵈 · 다>(끄다;滅)[월곡 106 (1447)], 뵈 · 리 · 다>(꾸리다;包)[월석 2:43 (1459)], · 뵈>(끼니)[용비 113 (1447)], · 뵈>(끼때)[석보 13:1 (1447)], · 뵈 · 다>(끼다;挾)[두시 初 10:26 (1481)]

7.2.5.2. 어두음절초 ‘뵈’의 통시적 검토

- ① ‘뵈’의 분포와 같이 어두음절 ‘뵈’은 15세기에 안정적으로 표기됐다.
- ② ‘뵈디다’의 경우는 ‘15세기에 [능엄 2:95 (1462)], 16세기에 [자회 하:17 (1527)] [유합 하:59 (1576)], 17세기에 [두시 중 2:33 (1632)], 등과 같이 15-17세기 초까지 표기가 이어지고 있다. 그밖에 ‘뵈여, 뵈다’ 등도 17세기 까지 표기가 되었다.

7.2.6. 어두음절초 ‘뵈’의 분포와 구조 제약

7.2.6.1. 어두음절초 ‘뵈’의 분포

15세기 문헌에서 조사한 어두 ‘뵈’의 분포 사례이다. 어형의 변화 표시로 ‘>’을 사용하여 ‘15세기의 어형> 현대어의 어형’을 나타내어 비교 하였다.

· 뵈>(때,時)[정음 합자 (1446)], 뵈 · 리 · 다>(破)[월곡 77 (1447)], 뵈 · 다 (溢)[능엄 8:102 (1461)], 뵈 · 다>(찌르다;刺)[월석 23:73 (1459)], [두시 初 15:6 (1481)]

7.2.6.2. 어두음절초 ‘뵈’의 통시적 검토

- ① ‘뵈’의 분포와 같이 어두음절 ‘뵈’은 15세기에 안정적으로 표기됐다.
- ② ‘뵈(時)’의 경우는 ‘15세기에 [훈민 (1446)], [두시 초 8:66 (1481)], 16세기에 [소학 6:124 (1586)], 17세기에 [두시 중 7:14 (1632)], 등과 같이 15-17세기 초까지 표기가 이어졌다. 그밖에 ‘뵈려디다, 뵈다’ 등은 17세기까지 표기가 되었다. 그러나 ‘뵈디다, 뵈르다, 뵈다, 뵈우다’ 등은 16세기에 그치고, ‘뵈려디다, 뵈리다, 뵈오다, 뵈리’ 등은 15세기에 그치고 있다.

위 '8.2.1.2, 8.2.2.2, 8.2.3.2, 8.2.4.2, 8.2.5.2, 8.2.6.2'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어두 'ㅂ'계의 표기 연표와 제약

연대 항목	15c	16c	17c	18c	현대	비고
ㅂC	ㅂC	ㅂC	ㅂC	ㅂC	ㄷ	
ㅂE	ㅂE	ㅂE	ㅂE		ㅌ	
ㅂA	ㅂA	ㅂA	ㅂA	ㅂA	ㅆ	
ㅂX	ㅂX	ㅂX	ㅂX	ㅂX	ㅆ	
ㅂI	ㅂI	ㅂI	ㅂI		ㄱ	
ㅂC	ㅂC	ㅂC	ㅂC		ㄷ	
제약 유무	무	유와 무	유와 무	유	유	

자료를 검토하기에 앞서서 먼저 어두 합용병서 'ㅂ'계의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허웅(1953, 1965, 1981, 1999: 347-348)¹³⁾, 권재선(1977:73-81), 김차균(1984:24-30) 등은 모든 합용병서가 자음 균이라 하였고, 반면에 김민수(1955:19-30)¹⁴⁾, 이동립(1964:18), 도수회(1971, 1995:154-156), 이은정(1975:276-298) 등은 경음이거나 경음부호라는 견해이다. 한편 이승녕(1981, 1986:29-40), 이기문(1955, 1987:56)¹⁵⁾, 이남덕(1986:23-25), 김형규(1989:104)

13) 허웅(1999:347-348) : “각 합용글자는 저마다 제 소리를 가졌던 것으로 생각된다.”라고하고, “「ㅅ」-계의 합용병서의 소리도, 「ㅂ」-계의 경우와 같이, 각 글자가 제 소리를 가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외국말을 정음으로 옮길 때, 娑多 ㅅ stha, 史攪 ㅅstham ……”등과 같이 각각 소리 값이 있다는 것이다.(허웅, 1999: 352)

14) 김민수(1955:18-29) : 경음은 강렬한 폐쇄에서 나오는 음이므로 단순히 강렬한 폐쇄에서 발음되게 하려는 의미로 ㅂ 이나 ㅅ 의 합용병서로 표현했던 것이다. 그리고 2자 병서는 어느 1자가, 3자 병서는 어느 2자가 묵음이 되거나 숨겨지게 되므로 각각 자음 균에는 그 중 주장이 되어 우세한 자음, 즉 주음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이다.”라 하였다.

등은 ‘ㄷ’계만 어두자음군으로 보았고, 박병채(1971:304)는 후두음화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선학들의 다양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두 ‘ㄷ’계 합용병서에 대하여는 자음군설이나 경음설 모두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자음군설은 알타이 제어의 특성에서 어두자음군이 없는 것이 공통 특질인데 이를 위배하고 쓴 점과 어두 분절을 위치에는 한 음(音)만 발음할 수 있는데 2-3자음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설명이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경음설은 합용병서가 모두 경음이라면 ‘ㅅ’계와 ‘ㄷ’계의 경음이 어떻게 다르며 발음은 어떻게 하는지 명확한 구명이 어렵다.

이 글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합용병서 ‘ㄷ’계는 15세기 훈민정음 초기에 안정되게 표기되었으나, 16세기에 이르러 ‘ㅁ, ㅂ, ㅃ’부터 제 위치를 지키지 못하다가 17세기에 표기가 중단되었다. 이것은 1차적으로 ‘ㄷ’계 3차 합용병서와 ‘ㅁ’이 ‘자음군제약’의 영향을 받아 일어난 일이라 생각한다. 또한 ‘ㅂ, ㅃ’의 경우도 18세기에 이르러 표기가 중단된 것으로 봐서 ‘ㄷ’계로써 2차 자음군제약을 받은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15세기에는 자음군이었으나 자음군제약에 의하여 점차적으로 경음으로 편입되거나 다른 음으로 전환되었다고 밝힌다.

8. 결론

한국어의 어두음절은 특정 자음의 경우에 음절구조의 제약을 받는다. 현대어의 어두음절초 제약은 ‘ㄹ’의 제약, ‘ㄴ’의 제약, ‘자음군(子音群)’의 제약이 있다. 그리고 훈민정음의 23자음 중에서 어두 음절에 표기되지 못했던 ‘ㅇ, ㅅ’ 등에 대하여 구조제약의 관점에서 15세기 문헌을 중심으로 하여 통시적으로 고찰하였다.

훈민정음 해례에서도 초성은 열고 중성은 닫으며 중성은 이 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음절을 만든다는 음절구조 규칙을 설명하고 있다.

첫째, 어두음절초 ‘ㄹ’의 제약은 한글맞춤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중세국어인 15-16세기는 어두(초성)에 ‘ㄹ’을 표기하였으나 16세기부터는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제약의 이유는 ‘ㄹ’이 공명도가 모음과 가깝고 소리

15) 이기문(1987:56-60) : “合用並書는 文字 그대로의 子音群을 나타냈다고 보는 것이 原則일 것이다. …” 그리고 “… 以上の 論述에서 後期 中世語에 다음과 같은 語頭子音群이 있었음이 드러난다.

ps pc pt pt^h pt' pk'
이 體系는 첫 子音이 兩脣 閉鎖音임을 特徵으로 한다.”

가 여린 자음이기 때문에 공명도제약을 받은 것이라 판단된다.

둘째, 어두음절초 ‘ㄴ’의 표기는 15-17세기까지 안정되었고, 18세기 이후에 구조제약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한글맞춤법통일안(1933)의 규정에서 완전하게 공명도제약이 적용되고 있다.

셋째, 중세국어의 어두음절초 ‘시, ㅅ, 새’ 등은 구조제약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음군제약을 받지 않은 점에서 경음으로 해석된다.

반면 합용병서 ‘ㅂ’계는 15세기 훈민정음 초기에 안정되게 표기되었으나, 16세기에 이르러 ‘ㅃ, ㅃ, ㅃ’부터 불규칙하다가 17세기에 표기를 멈추었다. 이것은 자음군제약에 의한 것이라 판단된다.

넷째, 어두음절초 ‘ㅇ’은 15세기에 어두음절초에는 표기되지 못하고, 어중음절초에만 나타났으나 16세기 후반부터는 음절초에 위치할 경우 [k], 선행음절말에 위치할 경우 [ŋ]로 나타난 것으로 봐서 ‘ㅇ’은 어두와 어중에서 공명도제약을 받았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어두음절초 ‘ㄷ’은 공명도제약의 영향을 받아서 표기되지 못하고, 어중음절초에서도 영향을 받아 16세기 후반부터는 대부분 ‘ㅇ, ㅅ’으로 변화되어 표기되었다. 이와 같이 15세기 국어의 어두음절초는 구조제약을 받은 것으로 고찰되었다.

참고 문헌

- 강신향. (1999). 훈민정음연구. 서울: 성균관대출판부, 100-103.
- 강창석. (1984). 국어의 음절구조와 음운현상, *국어학*, 13, 212.
- 권재선. (1977). 각자병서의 음가고. *한글*, 160, 73-81. 한글학회.
- 권재선. (1979). 병서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57-70.
- 권재선. (1998). 훈민정음의 표기법과 음운. 서울: 우골탑, 144-189.
- 김차균. (1983). 음운론의 원리. 서울: 창학사, 29.
- 김차균. (1984). 15세기 국어병서의 음운론적 연구. *한글*, 183, 24-29.
- 김무림. (2003). 국어음운론. 서울: 한신문화사, 177-181.
- 김민수. (1955). 합용병서 음가론. *국어국문학*, 13, 29-30.
- 김석득. (1999). *우리말 연구사*. 서울: 정음문화사. 72-78.
- 김형규. (1989). *국어사개요*. 서울: 일조각. 107.
- 김형주. (1993). *국어사연구*. 부산: 부산대출판부. 40-81.
- 도수희. (1995). *한국어 음운사 연구*. 서울: 탑출판사. 104-117.

박병채. (1971). *고대국어의 연구*. 서울: 고려대출판부. 304-316.

박창원. (1996). *중세국어 자음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205-208.

엄태수. (1997). ‘ㅅ’ 합용병서에 대한 연구. *서경대 인문과학연구*. 6-8.

오정란. (1987). *경음의 국어사적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22-129.

우민섭. (1988). *15세기 국어의 초성병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35.

우민섭. (2000). *중세국어 음운연구*. 전북: 전주대출판부. 160-209.

유창돈. (1978). *이조국어사 연구*. 서울: 삼우출판사. 21-25.

이기문. (1987). *국어음운사연구*. 서울: 탑출판사. 52.

이기문. (1994). *16세기 국어의 연구*. 서울: 탑출판사. 56-70.

이기문 · 김진우 · 이상억. (1997). *국어음운론*. 서울: 학연사. 44-45.

이남덕. (1968). 15세기 국어의 된소리 고. *이승녕박사 송축기념논총*, 408-409. 서울: 을유문화사.

이동림. (1964). 어두어말복자음형성 급 축음 ‘叱’과 ‘ㄱ, ㅅ(ㅆ), 비’ 관계. *국어문학논문집5*. 동국대학교. 6-18.

이병운. (2000). *중세국어의 음절과 표기법 연구*. 부산: 세종출판사. 109-111.

이승녕. (1986). *중세국어문법*. 서울: 을유문화사. 25.

이은정. (1975). 중세국어에서의 병서자의 소리 값에 대하여. *한글*, 156. 273-305.

이익섭. (1992). *국어표기법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43-47.

정연찬. (1985). *한국어음운론*. 서울: 개문사. 108-123.

최현배. (1982). *고친한글갈*. 서울: 정음문화사. 546-569.

허삼복. (1991). 표기법과 표기인식. *어문연구*, 22, 67-72.

허용. (1999). *국어 음운학*. 서울: 샘문화사. 352.

홍운표. (1986). *근대국어의 표기법 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 16-124.

이태희(李泰熙)

132-740 서울 도봉구 쌍문1동 721번지 극동아파트 102동 1102호
 경희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국어학)
 전화 : (02)996-2393, (02)907-4372
 이메일 : leeth@khu.ac.kr

Received: 30 Jun, 2005

Revised: 9 Sept, 2005

Accepted: 14 Sept, 2005